



광주표심 어디로

우리·민주 백중세...부동층이 변수

5·3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5·18 기념일을 맞아 광주로 총 집결하는 등 호남 대격투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광주 표심이 전국적인 호남출신 유권자의 투표 향배를 결정, 지방선거의 관세울 가를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2007년 대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로서 '대선전초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역대 대선 때 선거의 운명을 좌우했던 호남 유권자의 선택 방향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호남 중에서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엇비슷한 광주지역의 표심은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15일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 표심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

“광주는 대선 가늠자” 사활 건 대격투 전국 호남출신 유권자 표심 영향줄 듯

로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부동층이 30%에 이르고 있어 어느 당도 우세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광주 민심이 개혁성이 강하고 참여정부 창출의 근간이 됐다는 점에서 결국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들어 광주에서의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열린우리당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 광주 민심이 지방선거 막판에 여당 지지로 대거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광주 민심의 뿌리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 민심이 결코 이번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을 통한 정권 창출을 원하는 광주 민심이 추후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보다는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노당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실망한 개혁적 성향의 광주 민심은 결국 민노당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그동안의 호남 구애에 대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광주 민심이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정계개편과 정권창출까지 염두에 두고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어느 당의 손을 들어줘야 정권 창출이 가능하느냐를 놓고 지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 출신 차기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과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점은 광주 민심의 향배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로 해석되고 있다. 현 상황으로는 광주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민심은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후 정계 개편 과정을 고려한 어떤 절묘한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개국 국가개발 파트너십 구축

盧대통령 몽골·아제르·UAE 순방 결산

노무현 대통령이 7박8일간의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UAE)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전 특별기편으로 귀국했다.

노 대통령은 7~12일 몽골을 국빈방문, 남바린 엔흐바야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양국관계를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키고 양국간 경제 협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몽골 양국은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사회보장협정을 비롯해 에너지·자원·건설·교통·IT(정보기술) 등 각종 분야에 있어 정부 및 비정부간 총 20 개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몽골 거주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 “원칙있게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 10~12일 2박3일간 일정으로 아제르바이잔을 국빈방문,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강화 및 제

반분야 협력의 발전 방향을 담은 '한·아제르바이잔 관계 및 협력의 원칙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한·아제르바이잔 양국은 문화협정, 항공협정, 에너지·자원협력 MOU 등 정부·비정부간 총 11 개의 협정 및 MOU를 체결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와 '이남(In-am) 유전광구 공동개발 협력 MOU'를 체결, 20억 배럴 규모의 이남 광구에 SOCAR가 보유하는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독점적 협상권'을 부여받았다.

이어 노 대통령은 UAE를 2박3일간 일정으로 공식방문,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차원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한·UAE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협정을 비롯해 원유 국제공동비축사업 MOU, 자원·에너지 협력 MOU, IT협력 MOU 등 총 6개의 정부·비정부간 협정 및 MOU를 체결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 “3개국의 국가개발전략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대외경제 영역을 확대하고 외교를 다각화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략공천은 원인무효 법적대응”

우리당 광주시장후보 탈락 김재균씨...무소속 출마는 안할 듯

열린우리당 중앙당이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면서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재균 전 광주 북구청장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15일 오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절차와 정당정신을 망각하고 정치도의를 파탄시키는 무원칙한 결정”이라며 “조영택 후보가 (지난주 양측의) 여론조사 합의 내용을 내가 모두 공개한 것으로 공격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으로 조 후보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이번 전략공천은 명백한 원인무효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행보와 관련 “전국 단체장(광주 북구청장) 중 가장 먼저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은 정당정신에 나라를 구하려는 뜻이 담겨 있어서였다”며 “시당위원장이어서 정당정신 수호에 미려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14일 오후 광주에 내려온 뒤 거의 밤새 쉬다가 무소속 출마, 탈당, 당직 사퇴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문을 볼 때 김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탈당이나 시당위원장 사퇴 등의 항의성 정치행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가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원인무효 행위’로 규정하고 조 후보에 대해서는 ‘범에 훼손’이란 카드를 치켜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변호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김씨 행보다. 이에 대해 김씨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현직인 시당위원장을 유지하겠



열린우리당 김재균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공천은 원인무효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워치코리아 jrw@kwangju.co.kr

다는 것 뿐, 따라서 그는 지방선거 후까지 시당위원장을 유지, 이번엔 반대 편에 섰던 국회의원 7명의 정치적 행보를 강력히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또 자신의 아성인 북구에서 출마한 이형석 북구청장 후보를 지원, 당선시킴으로써 북구를 향후 정치적 행보의 교두보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국민 의견 수렴 없으면 FTA 후유증 클 것”

조순 전 경제부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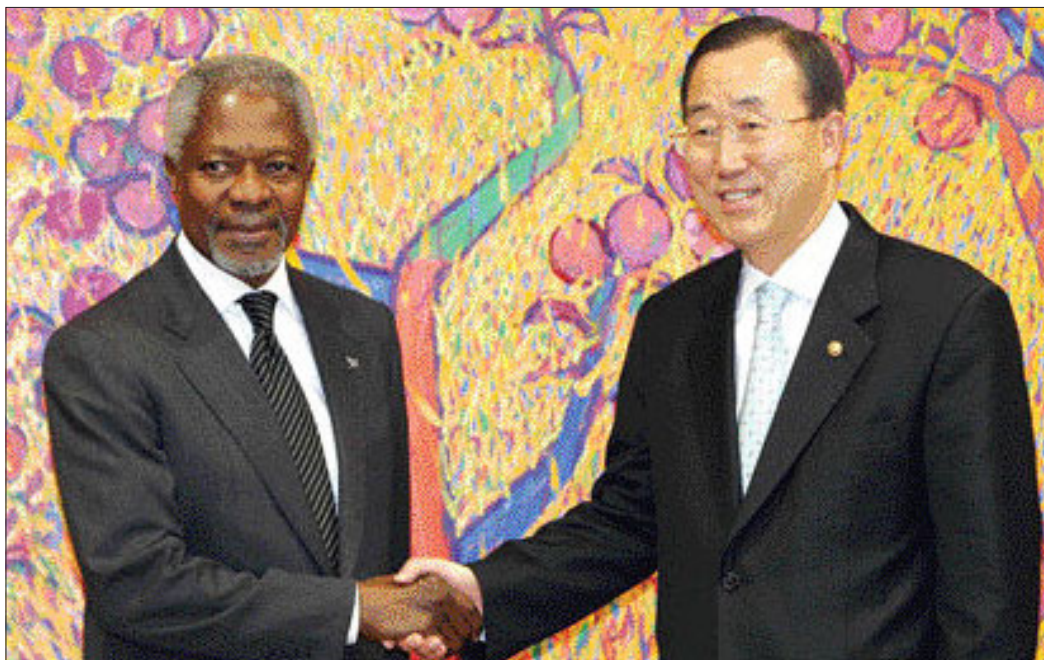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15일 “외환위기 이후 ‘암흑개혁’을 추진한 후유증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없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또다른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열린 한국경제학회 2006년 제1차 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추진과 관련 이렇게 밝혔다.

조 전 부총리는 “어떤 한 나라와의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잘된다 안된다 단정 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미국과) FTA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 경제 성장이 더디어 지는 것은 아니며 FTA를 많이 체결해도 안되는 나라는 결국 안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는 경제정책 면에서 ‘아마추어’적이다”라고 말한 뒤 “양국화란 단어는 비하하는 뜻을 품고있어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에 관한 장기적 전망과 좋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청사 집무실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訪韓 코피 아난 “차기 총장 아시아서 나와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차기 사무총장과 관련,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수십년간의 관례로 볼 때 아시아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아난 총장은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자질에 대해서는 “우선 풍부한 경험과 성숙한 인격,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하고 인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는 복잡한 문제가 많은 만큼 사무

총장은 각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당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발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총장에 출마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유엔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며 유엔 근무 당시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될 문제이며 오는 10월이 지나야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내집 마련 걱정? 부양 사랑으로 해결!!

부양사랑

2006년 9월 입주예정!

062) 368-8322

주 부 영

사랑으로

부양 사랑으로 분양

2006년 9월 입주예정!

062) 368-8322

주 부 영